

날짜: 5785 년, 여섯째 달 2 일 (8 월 26 일, 2025)

토라 문: 재판장들

주제: 아말렉 - 성소의 재앙, 제 1 부

신명기 17 장 14-15 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여호와 네 권능자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에 정착할 때에,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처럼 내 위에 왕을 세우겠다'고 말할 때에는, 여호와 네 권능자께서 택하실 왕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네 형제 중에서 네 위에 왕을 세워야 한다. 네 형제가 아닌 이방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마라."

미드라쉬에 따르면, 이 구절은 왕을 세우는 것이 단순히 선택 사항이 아니라 토라에서 요구하는 계명임을 암시합니다 (ADB 20230818 참조).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세 가지 미쯔보트를 (계명들을) 준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첫째: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아말렉의 영은 긍휼이 없음)

둘째: 왕을 세우고,

셋째: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고 아말렉을 전멸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전멸을 완전히 이루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고 (사무엘상 15:8-9), 그의 후손들이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미드라쉬에 따르면, 이 계명은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최선을 다해 그 계명을 지켰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여호와와 그의 집을 짓는 행위를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성전을 짓도록 하라는 명령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너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요, 네가 평안히 거하리라" (신 12:10-11).

사울이 아말렉에 대한 군사적 승리로 그 조건이 충족된 것처럼 보였으므로, 여호와와 그의 집 그를 위한 성전의 건축도 연이어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건축으로 나아가지 못한 원인과 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이간질과 험담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험담을 퍼뜨리는 것은 야호와의 거룩하신 영의 שכונה (세키나; 임재)를 그 땅에서 떠나시게 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는 것은 세키나, 임재가 그 땅에 머무시도록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두 조건은 상호 배타적입니다. 곧 두가지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그런 상호 배타적인 물리적 영적인 환경에서 그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도록 조성하신 것입니다. 비방하는 말 (לשון הרע: 라손 하라)이 만연하여 세키나가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면, 세키나를 위한 거처를 만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에셰드 하네칼림 (Eshed HaNechalim)은 여호와 권능자의 거룩하신 영의 임재 그 존재 여부가 각 땅에 실질적인 물리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합니다. 성령 임재의 여부는 신성하신 섭리가 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과 행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보살피실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탈무드(산헤드린 20b)는 이 세 가지 미츠보트에 필요한 순서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힙니다.

1. 왕을 세우라,
2. 아말렉을 박멸하라,
3. 성전을 건축하라.

이 순서는 중요합니다. 현인들은 아말렉과 그 이념은, 인류 역사의 신성한 목적, 즉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범 우주적 순복에 근본적으로 반대된다고 가르칩니다. 라쉬는 (출 17 장 16 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아말렉의 기억과 행실이 지속되는 한, 여호와의 이름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으며, 그의 왕좌도 완전히 자리잡지 않는다." 이 뜻은 이 땅에서 아말렉의 지속적인 존재는 여호와의 임재와 온세상에 그의 위엄을 드러내는 중심이 되는 처소의 건립과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물리적인 처소가 건립되기 전에, 그 정해주신 땅에 들어 가서 그 땅에 잠재하는 아말렉을 물리쳐 내야 합니다. (여기서 땅이란 곧, 개인의 육신과 그와 영으로 함께한 형제들이 함께 밟고 있는 흙의 지대 모두를 지칭합니다.)

이 원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짓는 새로운 성소의 건립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서 잘 드러납니다.

1.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라는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공격해 오는 무궁홀의 아말렉 군대와 싸워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2. 이스라엘 땅에서: 첫 번째 성전이 건립되기 전에, 사울 왕은 당시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 거의 전멸에 이르렀습니다.
3. 페르시아 통치 기간: 제 2 성전이 완공되기 전,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아말렉의 후손이자 아말렉의 이상을 강력히 지지했던 하만을 몰락시켰습니다.

알쿠트 시모니 (Yalkut Shimon)에 따르면, 하만과 그의 아들 심샤이가 페르시아 당국을 조종하여 성전 기초만 놓인 채, 고레스 왕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중단하게 만들었던 자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미드라쉬에 명시된 세 가지 미츠보트는 명시하신 똑바른 순차대로만 따라야 이행될 수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왕이 전쟁에서 나라를 이끄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왕으로 집중된 군주제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말렉과의 전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말렉이 패배 된 후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처소, 그의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적절한 요건들을 갖추게 됩니다.

샬롬